

‘강진 반값여행 효과’ 소상공인 매출 ‘깡충’

2024년 시행 이후 34배 증가...쇼핑몰 매출도 상승
군, 전담조직 신설...마케팅 직영·오픈마켓과 협업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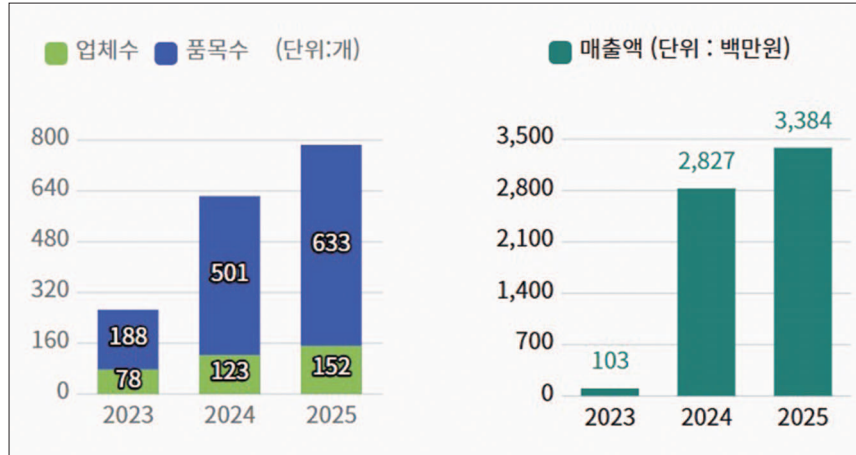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2024년 처음으로 강진 반값여행 정책을 시행한 이후와 비교할 경우 34배 성장한 수치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강진 반값여행을 시행하면서 초록민음 온라인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2.0 시스템을 쇼핑몰에 접목시켜 반값여행페이백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값여행은 강진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오프라인은 물론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의 매출액 중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4%에 가

까운 금액이 반값여행 혜택을 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쇼핑몰 회원수도 15배 증가하면서 반값여행 효과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정부에서 강진 반값여행을 시범 도입,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내에 초록민음강진 쇼핑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온라인 입점부터 마케팅까지 직영으로 추진했다.

임점품목 발굴과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오픈마켓 행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자체 쇼핑몰 위탁비용을 절감했다.

그 결과 쇼핑몰 입점업체 78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했으며, 입점품목도 188개에서 633개 품목으로 다양화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G마켓, 옥션, 남도장터와 같은 외부 오픈마켓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브랜드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판로를 확대해 지역생

산품의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강진 반값여행은 19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22일 이후 정산이 되면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에서 페이백 사용이 가능하다. 반값여행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강진반값’을 검색하거나 www.gangjintour.com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신안군, 신소독작물 집중 육성
공모 선정...국비 18억원 확보

신안군은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 신소독작물 전략 육성을 위한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신안군 특화 신소독작물(바나나, 커피, 망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관내 식품제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기능성 인증, 브랜드,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안군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신안군의 신소독작물(바나나, 커피, 망고) 특화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개발, 규제인증·시험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 전시회·특판전 참가 등으로, 이를 통해 지역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독작물 육성은 신안군의 필수 전략사업이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신안군 신소독작물이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이진목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계획 실행을 위한 전시 연출과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 박차

군, 전시 연출·박람회장 운영 착수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계획 실행을 위한 전시 연출과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이자 해조류산업 발전과 K-Seafood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보고회에는 이범우 완도군 부군수, 부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연출과 박람회장 운영, 개막식,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콘텐츠를 구체화했다.

전시 연출 분야는 완도해조류센터들 ‘해조류 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해조류와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운영은 개막식 때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퍼포먼스, 친환경 물병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와 박람회 기간에 어린이날이 있어 해조류·바다낚시 체험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경계 도로·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

국도 13호선·삼호서중·삼호도서관 등 취약지 안전 강화

영암군은 최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보호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군 경계 구간과 생활안전 취약지역에서 진행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영암군과 나주시 경계구간인 국도 13호선, 삼호읍양휴면시아2차아파트와 삼호서중, 삼호도서관 주변 등에 가로등을 설치해 야간 시간 교통과 생활 불편을 덜었다.

신복면 전남방직 영암공장 앞을 지나는 국도 13호선 576m에 가로등 16본을 설치해 밝기를 개선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군과 시의 경계로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영암군은 이번 가로등 설치가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호읍양휴면시아2차아파트 주변 100m에는 3본, 삼호서중 주변 300m에는 6본, 삼호도서관 주변 180m에는 5본의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 보호와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했다. 학교 주변인 이 지역은 지금까지 야간 시간 어두운 안전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해남군은 폐렴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이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올해 65세에 진입하는 1961

년생 어르신들께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 가능 기관은 관내 21개 지정 의료기관과 14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연중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으로 최대 80% 예방효과가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접종 사업인 폐렴·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